

<p>1. 9월 26일(화) 12시 20분까지</p> <p>청포도</p> <p>내 고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</p> <p>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곰게 밀려서 오면</p> <p>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</p> <p>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아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</p>	<p>2. 9월 26일(화) 12시 20분까지</p> <p>광야</p> <p>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릴 때 어디 닦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달릴 때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으리라 세월이 흘러 꽃피는 계절이 첨첩 쌓여 비로소 큰 강물이 생겼다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다 내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천년 뒤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울리라</p>
<p>3. 9월 26일(화) 12시 20분까지</p> <p>모란봉에서</p> <p>양당한 솔나무가지에, 훈훈한 바람의 날개가 스치고, 얼음 섞인 대동강물에, 한나절 햇발이 미끄러진다,</p> <p>허물어진 성터에서 철모르는 여아들이 저도 모를 이국말로, 재잘대며 뛸을뛰고. 난데없는 자동차가 밟다.</p>	<p>4. 9월 26일(화) 12시 20분까지</p> <p>긍정적인 밥</p> <p>함민복</p> <p>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</p> <p>시집 한 권에 삼천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덥혀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</p> <p>시집이 한 권 팔리면 내게 삼백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돈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</p>